

전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문화지역: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를 중심으로*

김장수** · 장동호***

A Study on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Region of Weeding Song in Jeonnam District: Focusing on the Arishigona, Sanaji, Jeolo, and Sehwaja(Sewoli)*

Jangsoo Kim** · Dongho Jang***

요약 : 본 연구는 전남지방의 논매기소리인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를 대상으로 그 분포 특성과 문화지역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는 지역적인 분포 패턴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아리시고나 류’는 주로 영산강 중하류 유역에 밀집되어 나타나고, ‘산아지소리’는 섬진강 중상류 및 보성강 유역에, ‘절로소리’는 진도와 신안을 포함한 전남 서남부 도서 및 해안지역에, ‘세화자(세월이)소리’는 영산강 중상류 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노래의 문화 중심지는 각각 영산강 중류 우안, 보성강 유역, 진도군 소포만 일대, 영산강 중류 좌안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이소라(2003), 이소라 등(2020a; 2020b)의 연구에서 밝힌 문화지역의 범위 및 대표격의 형태, 전파경로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 연구에 이용된 자료의 양이 과거의 연구보다 방대하고, 지역적인 발음을 청각에 의지하여 기록하면서 발생한 오기에 의해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일 수도 있다.

주요어 : 논매기소리, 아리시고나, 산아지, 절로, 세화자(세월이)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region of weeding songs in Jeonnam district. These songs include the ‘Arishigona series’, ‘Sanaji song’, ‘Jeolo song’, and ‘Sehwaja (Sewoli) song’. The songs were found to clearly display regional distribution patterns. For example, the ‘Arishigona series’ are concentrated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Yeongsan River, while the ‘Sanaji song’ is mainly distributed in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Seomjin River and the Boseong River basin. The ‘Jeolo song’ is in the islands and coastal areas in the southwestern part of Jeonnam, including Jindo and Shinan, and the ‘Sehwaja (Sewoli) song’ in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Yeongsan River. The cultural centers of these songs are considered to be the right bank in the middle reaches of the Yeongsan River, the Boseong River basin, the whole area of Sopo Bay in Jindo-gun, and the left bank in the middle reaches of the Yeongsan River, respectively. Meanwhi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research conducted by Lee (2003) and Lee *et al.* (2020a; 2020b) in the scope of the cultural region, representative form, and propagation path. The reason is that the amount of data used in this study is larger than that of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 types of song forms may be classified into different types due to a mistake in hearing and recording received pronunciations with regional accents.

Key Words : Weeding song, Arishigona, Sanaji, Jeolo, Sehwaja (Sewoli)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3158).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Kongju National University, matra99@kongju.ac.kr)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gisrs@kongju.ac.kr)

I. 서론

민속음악이란 민간의 생활, 풍속에 관련된 음악으로 한국음악에서는 민요와 판소리, 농악, 사물놀이, 시나위, 산조, 가야금병창, 굿음악 등의 장르로 발달되어 있다(이소라, 2002). 민요는 전문적인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부르던 노래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궁중과 상류층에서 연주되던 전통음악인 아악(雅樂)에 비해 형식상의 자유로움과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 특징이다(이소라, 2002; 서영숙, 20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로 지역적인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지역 특유의 것으로 구전되어 왔고(최난경, 2009; 서영숙, 2019), 인접한 지역일지라도 환경의 차이에 따라 미묘한 변화 차이가 나타난다(김장수·장동호, 2020).

민요의 한 갈래인 논매기소리는 파종 후 논매기를 하면서 부르는 일종의 노동요로, 일에 따라 불가분성, 질서성, 신호성, 능률성의 관계를 가진다(이소라, 1987).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수 전 세 번에 걸쳐 논매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가락의 노래를 불렀으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더 나아가 각 논매는 시기별로 각기 다른 가락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많았다(이소라 등, 2020a).¹⁾ 또한, 논농사 중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논매기의 특성상 노동의 능률성 및 고됨을 잊기 위해 노래가 발달하면서(이소라, 1987), 지역적인 특성이 그 노래에 반영되었다(강동학, 1997).

논매기는 파종 후 논에 잡초를 제거하는 행위로 벼농사의 시작과 함께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논매기소리 또한 모심기소리 보다 앞서 불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²⁾ 논매기소리의 역사적 기록을 세종실록에 실린 기사의 ‘농요’라는 단어에서 찾은 강동학(1997)은 여러 정황상 신라 말이나 고려 초에 논매기소리의 기본적인 틀이 잡혔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명확하게 논매기소리에 대한 기록(논매기소리의 가사나 명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강동학, 2009; 김장수·장동호, 20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시화와 농촌인구의 감소, 농기계의 발달과 제초제 사용의 증가로 인한 투입되는 노동력의 감소는 논매기소리의 구전을 끊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장수·장동호, 2020). 따라서 명맥이 끊어져가는 논매기소리를 잊기 위해 그동안 국문학계와 민속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양광호, 2001; 이옥희, 2002;

이윤선, 2006; 조혜영, 2009; 최난경, 2009; 이소라, 2014; 최자운, 2016; 이소라 등, 2020a; 2020b).

이옥희(2002)는 진도지방의 ‘산아지타령’의 후렴구와 ‘진도아리랑’의 후렴구가 매우 유사함을 밝히고 ‘진도아리랑’이 ‘산아지타령’으로부터 발달한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윤선(2006)은 진도 소포만에 본거지를 두었다고 생각되는 ‘남도들노래’, ‘진도만가’, ‘진도복놀이’가 간척사업을 거치면서 획일화되면서, 포구라는 지형적인 개방성에 기반한 전통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다. 조혜영(2009)은 진도와 인접지역 장원질소리³⁾의 악곡을 분석한 후, 진도와 인접지역의 장원질소리는 지역 간의 공통점이 없이 각기 다른 속도와 가락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심지어 진도 내에서도 다른 속도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최난경(2009)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논매기소리의 가창시기와 노동의 종류에 따라 기능을 나누고 논매기소리의 지역별·기능별 분포를 살펴보고, 전라도 지방에서 평야지대와 산간지대의 논매기소리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지리학계에서도 논매기소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유재진·장동호(2014)는 충남 남동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얼카덩어리 류’의 문화 중심지는 충남 서북부 지역이며, 지류 하천의 유로를 따라 전파되었다고 분석하였으며, 박현수·장동호(2016)는 충북 지역의 ‘짧은방아 및 ‘상사 류’의 문화 중심지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이 지역 지질구조선이라고 분석하였다. 김장수·장동호(2020)는 경남지방 ‘상사 류’의 분포 빈도를 바탕으로 ‘순 상사형은 중부 남강 유역, ‘어여루 상사형은 동강 본류와 황강이 만나는 지역이, ‘어허닐닐 상사형은 낙동강 동부의 창녕군 북부 지역이 문화 중심지라고 분석하였다. 주로 지리학계에는 지형학적 특성을 통해 논매기소리의 분포 및 전파 양상을 찾으려는 노력과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분포 빈도를 통해 문화 중심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문화지역이란 하나의 동질지역으로 특정 문화요소를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임덕순, 1998). 과거 농업기반의 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노동요는 중요한 문화의 한 요소였으며, 동일한 가락의 논매기소리를 공유하는 지역들은 동질의 노동요 문화지역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매기소리의 문화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남지방⁴⁾에서 채록된 논매기 소리 중 그 수의 합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아리시고나 류’와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바탕으로 전과 양상과 문화지역 및 문화 중심지를 분석하였다.

II.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연구지역인 전남지방은 대한민국 서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인 경상남도와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경계로, 북쪽인 전라북도와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남·서쪽으로는 황해와 남해가 접하고 있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5° 05' 00.0" ~ 127° 54' 28.8", 북위 33° 54' 57.5" ~ 35° 29' 00.0"이다.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합친 전남지방의 전체면적은 약 12,849.3km²(전라남도청; 광주광역시청)로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전남지방은 동쪽 방향의 소백산맥과 북쪽 방향의 노령산맥에 둘러싸인 형태로 동고서저 및 북고남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소백산맥은 백두대간의 남단에 해당하

는 지리산(1,915m)을 중심으로 산줄기가 전남지방의 동북부에서 남해안 방향으로 발달하여 전남지방에서 비교적 높은 지대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노령산맥은 전남지방의 서해안을 따라 내장산(763m)에서 유달산(228m)에 이르는 남서방향으로 발달해 있으며, 비교적 낮은 산지 및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전라남도, 2015).

이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은 전남지방의 대표적인 하천인 영산강과 섬진강, 탐진강, 황룡강이 대체적으로 남류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반면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은 북동류하여 섬진강에 합류한다(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전남 서남부와 서북부를 관류하여 목포만으로 유입되는 영산강은 자유평류를 하며 전남지방 최대 규모의 평야를 ‘나주평야’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지방의 동부 산악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관류하다 남해로 유입되는 섬진강은 강의 길이에 비해 유역면적이 좁고, 평야의 발달이 미약하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사이에 장흥군 유치면에서 발원하여 남해로 유입되는 탐진강은 강의 길이에 비해 중하류 지방에 비교적 비옥한 평야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산지 및 하천의 발달은 영산강 유역의 나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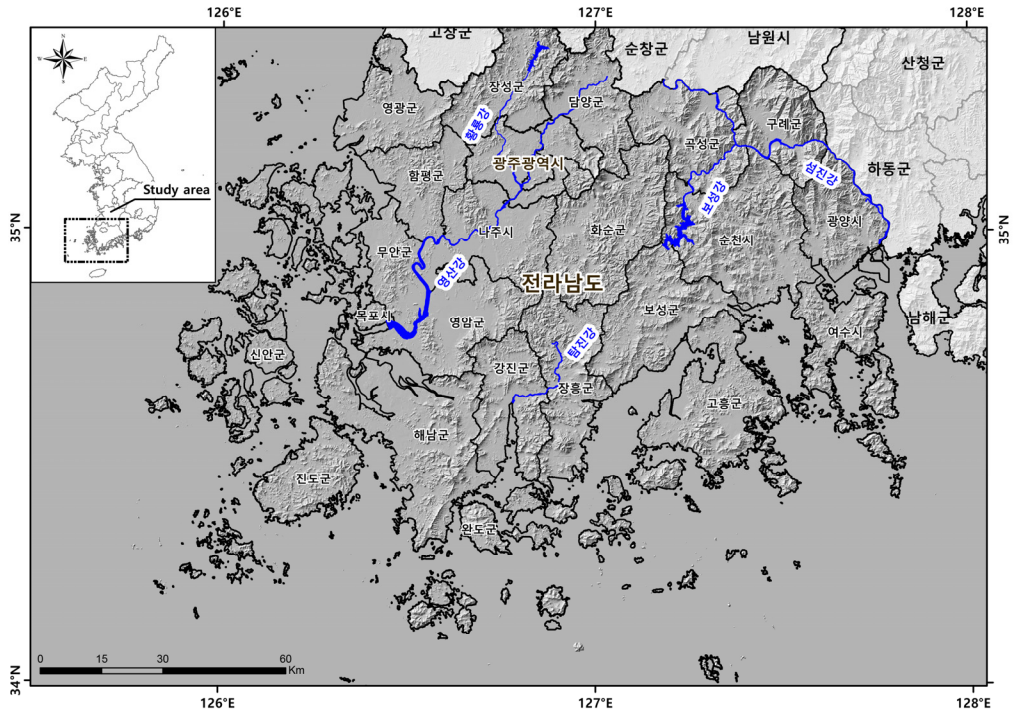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위치도

표 1. 전남지방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유형 및 수

유형	채록 수	유형	채록 수
아리시고나 류	74	세화자(세월이)소리	35
산아지소리	62	기타(148개 유형)	476
절로소리	48	합계	695

야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평야가 발달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해안을 따라 해안평야가 불규칙적으로 발달해 있는데, 주로 탐진강 유역에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릉지에 의해 평야가 구분되고 있다.

전남지방의 해안은 육지가 침수되어 형성된 해안으로 리아스(Rias)식 해안을 이루고 있다. 복잡한 해안선은 대소의 만입지를 형성하여 갯벌의 발달이 탁월하다. 이러한 갯벌의 많은 지역이 간척되어 현재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족음악연구소에 의해 1970~1980년대 전남지역에서 집중 채록된 논매기소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지역적 분포 특성이 또렷한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를 대상으로 그 분포특성과 문화지역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전남지역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의 총 곡수는 695곡이며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 ‘아롱 저롱 류’, ‘오혜루사 류’, ‘방애 류’, ‘더들개 류’, ‘입말 류’, ‘절레소리’ 등이 20곡 이상 채록되었으며, 기타 원류를 찾기 힘든 변형곡은 142개 유형 314곡이 채록되었다(표 1).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노동요로 사용되는 ‘상사 류’는(송방송, 2012) 19곡이 채록되어, 인접한 경남지방에서 채록된 234곡(김장수·장동호, 2020)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리시고나 류’는 받음구⁵⁾가 “아리시고나 -”로 시작하는 노래로, 논매기소리의 초두격인 <문열가(門-歌)>의 한 종류이다. ‘아리시고나’는 지역에 따라 ‘아리시구나’, ‘아리씨구나’, ‘어리시고나’, ‘어리시구나’ 등으로 불리우며, 앞서 설명했듯이 논매기를 처음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2016).

‘산아지소리’는 전라도 지방에서 불리던 노동요 및 유희요(遊戱謠)⁶⁾의 하나로 받음구에 “- 산아지로구나”라는 노랫말 후렴구에서 따왔으나 그 뜻은 알 수 없으며, ‘산아지타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에야디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진도아리랑’이 이 소리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도 있다(이소라, 2001; 이옥희, 2002).

‘절로소리’는 후렴이 “- 절로”라고 되어있는 노래로 모내기 후 김매기를 할 때 부르는 소리이다(이윤선, 2006). ‘절로소리’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남 진도 지방에서는 ‘절로소리’를 낮은 소리·중간 소리·짚은 소리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사용한다. 이 중에서 낮은 소리는 초벌 때는 소리로, 중간 소리는 두벌 때는 소리로, 짚은 소리는 세벌 때는 소리로 사용한다(최난경, 2009).

‘세화자(세월이)소리’는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 세화자 -”라는 논매기소리의 후렴구에 따른 명칭으로 지역에 따라 ‘시화자소리’, ‘세월이소리’, ‘세우자소리’ 등으로 불리운다. 주로 논매기가 거의 끝나가는 석양녘에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최난경, 2009).

전남지방의 논매기소리 중 ‘아리시고나 류’와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의 지역적 분포 특성 및 문화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채록된 전남지방의 논매기소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DB화하였다. DB화된 노래 중 채록 빈도수가 높은 ‘아리시고나 류’와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채록지의 주소지 및 가창자의 출신지, 주생활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화 작업을 실시한 후 각 소리의 문화 중심지를 분석하고 전파 양상을 통해 문화지역을 분석하였다.

III. 전남지방 논매기소리의 분포특성 및 문화지역

1. 아리시고나 류

‘아리시고나 류’는 영산강 유역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함평군에서는 나산면 이문리, 대동면 금산리·용성리, 손불면 대전리·양재리, 신광면 삼덕리, 월야면 용월리·월계리, 학교면 사거리, 함평읍 대덕리·진양리, 해보면 용산리에서, 영암군에서는 군서면 성양리, 금정면 와우리, 덕진면 용산리, 도포면 도포리·수산리, 삼호읍

전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문화지역: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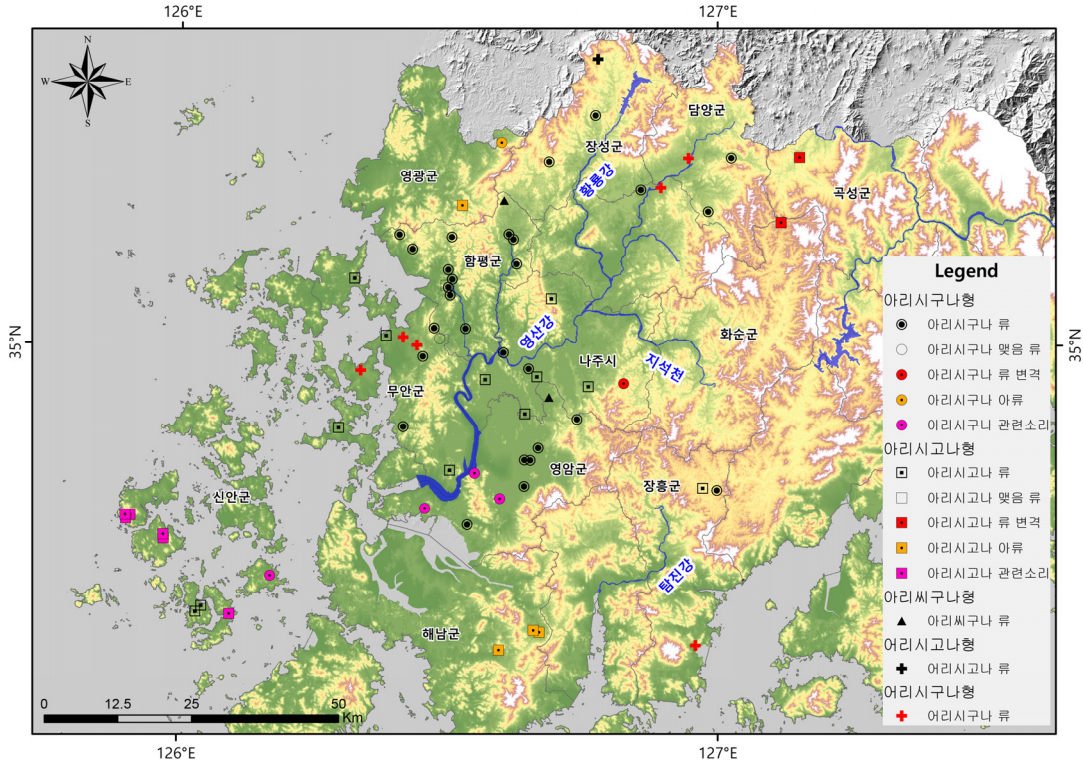


그림 2. 전남지방 아리시고나 류의 분포영역

(마을명 유실), 삼호읍 서창리, 서호면 엄길리·태백리, 신북면 갈곡리에서,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다도면 신동리, 다시면 동당리, 동강면 인동리, 반남면 흥덕리에서 나타난다. 그 외 담양군과 곡성군, 광주광역시, 해남군, 화순군, 장흥군, 장성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주로 전남지방의 서부지역에서 나타는 소리이다.

‘아리시고나 류’는 지역적으로 ‘아리시고나’, ‘아리시구나’, ‘아리씨구나’, ‘어리시고나’, ‘어리시구나’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기본형과 맺음 류, 변격형, 관련소리, 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표 2).

‘아리시고나 류’는 총 74곡이 채록되었는데 이 중 ‘아리시고나형’은 28곡이 채록되었다. ‘아리시고나형’의 기본형이 15곡, 아류가 4곡, 변격 2곡, 맺음 류가 1곡 채록되었으며, 관련소리는 7곡이 채록되었다. 기본형은 주로 영산강 유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아류나 변격, 관련소리는 영산강 유역에서 벗어난 화순군, 곡성군, 장흥군, 해남군, 신안군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2).

‘아리시구나형’은 35곡이 채록되었다. 기본형이 28곡, 아류 및 변곡, 맺음 류가 각 1곡씩 채록되었으며, 관련소리는 4곡이 채록되었다. ‘아리시고나형’과 마찬가지로 기본형은 주로 영산강 유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아류나 변격, 맺음 류도 주로 영산강 유역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리시구나형’과 ‘어리시고나형’, ‘아리씨구나형’은 기본형만 나타나고 있으며, 장흥군 관산을 송촌리에서 채록된 1곡을 제외하고 모두 영산강 유역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남지방 내 ‘아리시고나 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기본형은 대부분 영산강 유역 내에서 나타나고 유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아류나 변격, 관련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화의 기원지로부터 주변지역으로 문화 전파(culture diffusion)가 발생하면서 지형적인 요소에 의해 방해받아 그 원형이 변형되어 전파되었음을 의미한다(임덕순, 1998).

특히, ‘아리시고나 류’ 중 ‘아리시고나형’은 영산강 유

표 2. 전남지방에서 채록된 아리시고나 류의 분포

논매기소리명칭	분류	세분류	녹음지역	다른 이름
씨고 씨고야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변격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아리시고나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아리씨고나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	
아리시고나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아리씨고나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아리시고나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나주시 왕곡면 화정리	
마디요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어이 털령
어 그렇제, 마아하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위아해해잘로
아리시고나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저리시고 지아모리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관련소리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아리야 씨고나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관련소리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멤주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관련소리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저리시고 지아모리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관련소리	신안군 비금면 월포리	
아리야 씨고나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관련소리	신안군 비금면 월포리	
멤주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관련소리	신안군 비금면 월포리	
미영발매기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관련소리	신안군 신의면 상동리	아리사 네로구나
아리시고나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신안군 압해읍 신용리	
미영발매기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신안군 하의면 어은리	
미영발매기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신안군 하의면 옹곡리	
미영발매기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신안군 하의면 원동리	
미영발매기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신안군 하의면 원동리	
어리시고나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아류	영광군 불갑면 방마리	
진쇠소리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장흥군 장평면 양촌리	간가이, 세화자
만두리 맺음소리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맺음 류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애룡 대룡
긴소리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아류	해남군 삼산면 금산리	
긴논매기소리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아류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긴논매기소리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아류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에기야 디야뒤여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고나 류 변격	화순군 북면 남치리	사호소리
아리시고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논매는소리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변격	나주시 다도면 신동리	
아리시고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아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나주시 왕곡면 월천리	
아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문열가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아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무안군 무안을 용월리	
지엽 소리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맺음 류	무안군 무안을 용월리	
지엽소리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무안군 삼향읍	
아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하중 발매기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관련소리	신안군 장산면 공수리	
긴 입말 류 논매기소리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아류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	

표 2. 전남지방에서 채록된 아리시고나 류의 분포(계속)

논매기소리명칭	분류	세분류	녹음지역	다른 이름
어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아리씨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영암군 금정면 와운리	
아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영암군 덕진면 용산리	
아리알씨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영암군 도포면 도포리	
지심노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장원질
아모리해도 네로고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관련소리	영암군 삼호읍	우야자 잘로
어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들노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관련소리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마뒤요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관련소리	영암군 서호면 태백리	
어리시고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무넝기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아리씨구나
아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장흥군 장동면 봉동리	짚은 논김
아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아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아리씨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아리시구야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긴 소리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	
아리씨고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아리씨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웅아 ~ 모디요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아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아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아리시구나	아리시구나형	아리시구나 류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아리아리씨구나	아리씨구나형	아리씨구나 류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아리아리씨구나	아리씨구나형	아리씨구나 류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아리씨구나	아리씨구나형	아리씨구나 류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어리세고나	어리시고나형	어리시고나 류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논맴소리	어리시고나형	어리시고나 류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용전들노래	어리시구나형	어리시구나 류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어리시구나	어리시구나형	어리시구나 류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들래소리	어리시구나형	어리시구나 류	무안군 운남면 연리	
어리시구나	어리시구나형	어리시구나 류	무안군 현경면 양화리	
들래소리	어리시구나형	어리시구나 류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어리시구나	어리시구나형	어리시구나 류	장흥군 관산읍 송촌리	

역 중에서 나주시 서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이며, 인접한 함평군에서는 ‘아리시구나형’이 다수 분포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리시고나 류’의 전파 양상을 살펴보면, 무안군과 영광군, 장성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

는 함평군과 이어지는 평야지대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산지의 고갯길을 따라 논매기소리의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고, 영암군은 영산강의 하계망을 통해 논매기소리가 전파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산아지소리

‘산아지소리’는 주로 섬진강 유역에서 나타나는데, 순천시 별랑면 덕정리, 상사면 용계리, 송광면 삼청리·우산리·장안리, 승주읍 서평리, 주암면 덕흥리·운룡리, 해룡면 용전리·중흥리, 황전면 황학리에서,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정흥리, 문덕면 봉정리·양동리, 벌교읍 장도리·장좌리·지동리, 복내면 동교리, 웅치면 강산리, 조성면 우천리에서,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세풍리·우산리, 봉강면 구서리·봉당리·석사리·조령리, 옥룡면 운곡리·울천리에서 나타난다. 그 외 섬진강 중

상류인 곡성군, 구례군과 섬진강 상류와 인접한 담양군과 장성군,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 상류와 인접한 장흥군, 바닷길로 연결되는 고흥군과 여수시 등 주로 전남지방의 동부지역에서 나타나는 소리이다(표 3).

‘산아지소리’는 받음구에 따라 ‘산아지로구나’, ‘산이로구나’, ‘사랑이로구나’, ‘산아니로구나’,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표 3). 총 62곡이 채록된 ‘산아지소리’는 기본형인 ‘산아지로구나형’이 46곡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이로구나형’ 7곡, ‘사랑이로구나형’ 1곡, ‘산아니로구나형’ 4곡, ‘기타’ 4곡이다.

대부분의 소리가 섬진강 수계에 분포하고 있는 ‘산아

표 3. 전남지방에서 채록된 산아지 소리의 분포

논매기소리명칭	분류	세분류	녹음지역	다른 이름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남양면 망주리	
산아지로구나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도양읍 신정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이로구나형	고흥군 도화면 덕산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이로구나형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점암면 대룡리	
삼절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장원질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곡성군 삼기면 원동리	장원질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광양시 옥룡면 운곡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광양시 옥룡면 울천리	
논매기	산아지 곡류	산이로구나형	구례군 산동면 탑정리	마을길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구나형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장원질소리

표 3. 전남지방에서 채록된 산아지 소리의 분포(계속)

논매기소리명칭	분류	세분류	녹음지역	다른 이름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장원질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담양군 무정면 영천리	장원질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7월 백중 장원례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이로구나형	보성군 문덕면 봉정리	세벌 만조시 소리, 피뽑는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이로구나형	보성군 문덕면 봉정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이로구나형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보성군 별교읍 장도리	
산절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보성군 별교읍 장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기타	보성군 별교읍 지동리	삼절가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도사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보성군 응치면 강산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논매기소리
산아니로그나	산아지 곡류	산아니로그나형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순천시 송광면 삼청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이로구나형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순천시 주암면 덕흥리	논매기소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논매기소리
산아니로그나	산아지 곡류	산아니로그나형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순천시 해룡면 중흥리	진도아리랑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니로그나형	순천시 황전면 황학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여수시 남면 심장리	
산아지 곡풍	산아지 곡류	사랑이로구나형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산타령	산아지 곡류	산아니로그나형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기타	장흥군 대덕읍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장흥군 대덕읍 도동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지심매는 소리	산아지 곡류	기타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	
산아지	산아지 곡류	기타	장흥군 회진면 석곡리	
산아지로그나	산아지 곡류	산아지로그나형	화순군 남면 사수리	논매기소리

지소리'는 섬진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전북지역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남원시 대강면 평촌리의 '산아지소리'는 '산이로구나형'이며, 송동면 송기에서는 '사랑이로구나형'이 나타난다(이소라 등, 2017).

전라도 이외의 지역으로는 경남 진주에서 '산아지로

구나형', '산이로구나형', '사랑이로구나형'이 나타나며, 충남 지방에서는 '산아지로구나형', '산이로구나형'의 '산아지소리'가 보고되고 있다(이소라 등, 2020b).

'산아지소리'의 분포 양상을 보았을 때 섬진강 지류인 보성강 유역의 중·상류 지역이 문화 중심지로 판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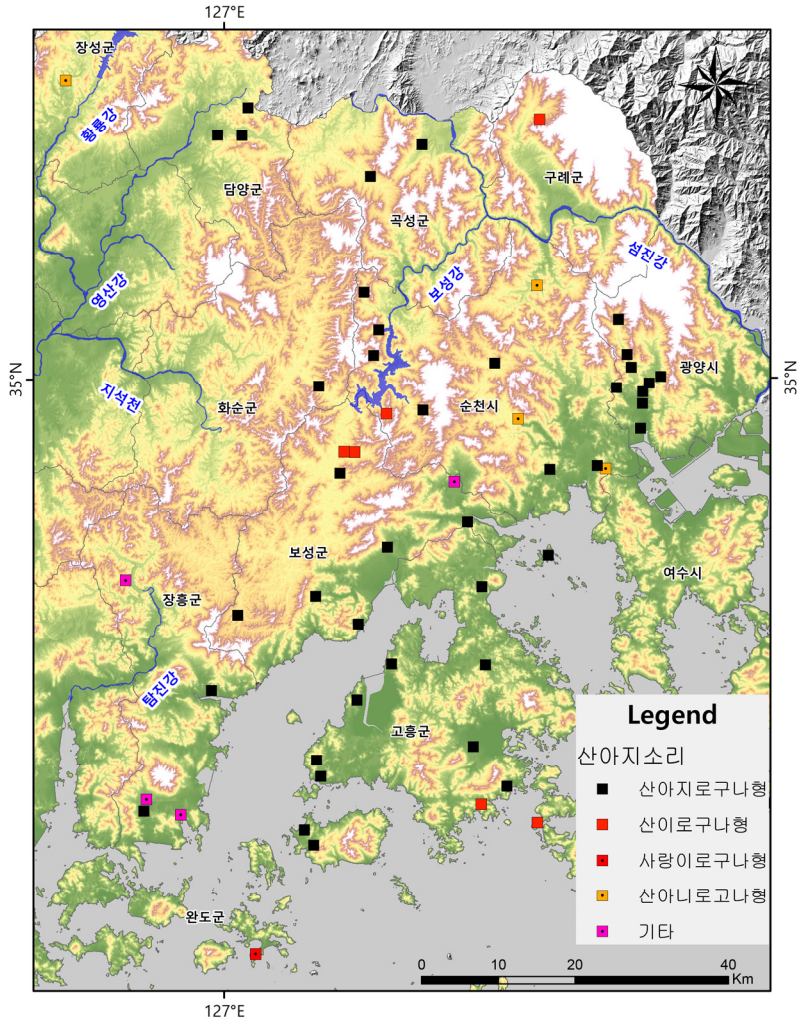


그림 3. 전남지방 산아지소리의 분포영역

다. ‘산아지소리’의 전파 양상을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산아지로구나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주암호가 위치한 보성강 중·상류의 하천변 경작지를 중심으로 발생한 ‘산아지소리’가 지류 하천의 이동 방향을 따라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성강이 섬진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섬진강 상류로의 전파도 이루어졌으며, 다시 작은 고개를 통해 담양군까지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남 남해안 지방의 경우 보성강 상류의 고개를 통해 인접지역으로 전파된 후 육로 및 해로를 통해 주변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흥군 안양면 지역의 경우 보성군 웅치면을 통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 보성군 웅치면이 장흥

군 관할 지역⁷⁾으로 빈번한 인적 교류를 통해 함께 전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

3. 절로소리

‘절로소리’는 진도군을 중심으로 하는 남서 전남지방의 도서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노래로, 진도군에서는 고금면 지막리, 군내면 덕병리·송산리, 의신면 돈지리, 임회면 석교리, 조도면 명석리·창유리, 지산면 갈두리·인지리·밤마리, 진도읍 남동리 등 거의 전 읍·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접한 해남군과 신안군에서도 나타나는데, 해남군에서는 마산면 덕인리·연구리, 문내

면 선두리, 산이면 노송리, 화원면 금평리·성산리·신태리, 황산면 남리리 등 주로 화원반도 일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도초면 고란리·만년리, 비금면 월포리·죽림리, 안좌면 소곡리, 압태면 구성리, 자은면 구영리·백산리, 팔금면 이목리·진고리에서 나타난다(표 4).

1972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남도들노래’는 소포만 일대의 들노래로 ‘긴절로소리’, ‘중절로소리’, ‘작은절로소리’로 구분하여 손으로 김을 때며 부른다(이윤선, 2006; 이소라 등, 2020b). 소포만은 현재 진도군 진도읍과 지산면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1970년부터 시작된 간척사업이 1977년 완료되어 지금은 사라진 이름이다.

‘절로소리’는 장단이 느린 것에서 빠른 것, 12박자, 6박자, 4박자 등 다양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윤선, 2006). 장단이 느린 ‘긴절로소리’ 받음구의 대표적인 예는 “이히야 - 아아/ 아하 헤헤에 헤 - 헤에헤 -/ 하저 - 흐을, 로 / 오 오호 이야 -”이며, 메김구⁹⁾와 받음구가 각각 내재6박 4마디로 구성된 느릿한 진양조장단이다. ‘중절로소리’ 받음구 예는 “이히 야 - -/ 아 - - -/ 하절로, 오 오호오/ 오호 오호오, 로우후우 야”이며, ‘긴절로소리’ 때의 내재6박1마디가 내재4박 내지 4분의12박 1마디로 쏠아져 메김구와 받음구가 각각 느린 중모리 4장단씩이다. ‘작은절로소리’의 받음구 예는 “아 하아, 아하아 -하 아하아/ 헤헤이 예헤이야 절 - 로 -”이고 메김구와 받음구가 각각 중중모리 2장단씩이다(이소라 등, 2020b).

‘절로소리’는 총 48곡이 채록되었는데 ‘긴절로소리형’ 4곡, ‘중절로소리형’ 3곡, ‘작은절로소리형’ 5곡이었으며, ‘느리고 빠른 장단이 혼재된 절로소리형’은 32곡이었다. ‘절로소리’는 지역적으로 ‘절레소리’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절로소리’의 격을 벗어난 ‘절로 변격’은 4곡이 채록되었는데, 신안군에서는 ‘상사 류’¹⁰⁾와 고흥군에서는 ‘만물소리’¹¹⁾와 상호 교섭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에염소리’¹²⁾와는 진도군 내에서 상호 교섭된 형태를 보인다(그림 4).

절로소리의 문화 중심지인 진도지역은 중생대 백악기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해발고도 200~400m 내외의 산지가 대부분으로 하천 및 평야의 발달이 미약한 편이다(과학기술처, 1971). 따라서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간척 전 해안평야에 해당하는 지역에 논매기 소리가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논매기 소리의 전파 역시

지형적인 특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변지역으로 전파되기 어려워 주로 선박을 이용해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파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세화자(세월이)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는 영산강 유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논매기소리로 석양편에 부르던 논매기소리이다. 받음구가 “헤 헤해야 헤 -,에 헤해야 세헤, 예헤월이나보 -, 오 세”이다. 지역에 따라 ‘세화자’가 ‘세월이’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주로 영산강 중류의 좌안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나주시에서는 금천면 동악리·원곡리, 다도면 인동리, 봉황면 송현리·오림리·철천리, 산포면 산재리, 왕곡면 덕산리·월천리에서 나타나며, 화순군에서는 남면 사평리·장전리, 능주면 만인리, 청풍면 차리, 춘양면 우봉리, 한천면 가암리, 화순읍 내평리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주시와 화순군 인근지역인 장성군과 담양군, 영광군, 함평군, 보성군 등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나주시와 화순군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신안군 도초면과 비금면, 완도군 노화읍과 보길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위적인 이주 등에 의한 특수한 경우로 판단된다(표 5). ‘세화자(세월이)소리’는 총 35곡이 채록되었는데 기본형인 ‘세화자형’ 25곡, 변형형인 ‘세월이형’ 5곡, ‘세화자와 세월이가 뒤섞인 소리’가 5곡이었다.

‘세화자소리’는 영산강 본류 및 지류를 따라 상류로 전파되면서 ‘세월이소리’로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산강은 20세기 중반까지 전남지방의 중요한 운송로로 이용되어 이 물길을 따라 소리가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화자(세월이)소리’는 영산강 상류의 분수계에서 단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남지방 중부를 가르는 호남정맥이 자연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화자(세월이)소리’는 영산강 유역이 아닌 지역(장흥군이나 보성군)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화순군과 연결된 고개를 통로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안군에서 나타나는 소리는 장흥군 부산면 용반리에서 불리는 논매기소리인 ‘서러 못살겠네’가 ‘세화자(세월이)소리’에 보태진 형태로(이소라 등, 2020b), ‘세화자(세월이)소리’의 유입경로가 영산강 하구의 뱃길이 아니라 화순군에서 장흥군으로 넘어온 후 뱃길을 따라 완도군을 거쳐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전남지방에서 채록된 절로 소리의 분포

논매기소리명칭	분류	녹음지역	다른 이름
절래소리	절로 변격	신안군 안좌면 소곡리	상사
절래소리	절로 변격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상사
두불논매기소리	중절로소리형	강진군 신전면 별정리	
소량 갈계소리	жат은절로소리형	강진군 신전면 별정리	에염소리
신전 들노래	절로소리형	강진군 신전면 용월리	
탈래	절로 변격	고흥군 두원면 관덕리	만물
저혈레	절래소리형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저혈레	절래소리형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저혈레	절래소리형	신안군 비금면 월포리	
저혈레	절래소리형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전래소리	절래소리형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절래소리
저혈레	절래소리형	신안군 안좌면	
저혈레	절래소리형	신안군 팔금면 진고리	
저혈레	절래소리형	신안군 암태면 구성리	
저혈레	절래소리형	신안군 팔금면 진고리	
절로	절로소리형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절로	절로소리형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저혈레	절래소리형	신안군 팔금면 이목리	
절로소리	절로소리형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절로소리	절로 변격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에염소리
절로소리	절로소리형	진도군 군내면 송산리	
절로소리	절로소리형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жат은 절로소리	жат은절로소리형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절로소리	절로소리형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жат은 절로소리	жат은절로소리형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절로소리	절로소리형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절로소리	절로소리형	진도군 조도면 명석리	
절로소리	절로소리형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긴 절로소리	긴절로소리형	진도군 지산면 갈두리	
중 절로소리	중절로소리형	진도군 지산면 갈두리	
жат은 절로소리	жат은절로소리형	진도군 지산면 갈두리	
긴 절로소리	긴절로소리형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중 절로소리	중절로소리형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жат은 절로소리	жат은절로소리형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절로소리	절로소리형	진도군 지산면 밤마리	
절로소리	절로소리형	진도군 진도읍	
긴 절로소리	긴절로소리형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긴 절로소리	긴절로소리형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절로소리	절로소리형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절로소리	절로소리형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잘로	절로소리형	해남군 마산면 덕인리	논맴
소 타고 들어오면	절로소리형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긴 저혈로	절로소리형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논맴
논매는소리	절로소리형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	장원질
저얼로	절로소리형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논맴
저얼로	절로소리형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논맴
저어얼로	절로소리형	해남군 화원면 신태리	논맴
저혈로	절로소리형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전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문화지역: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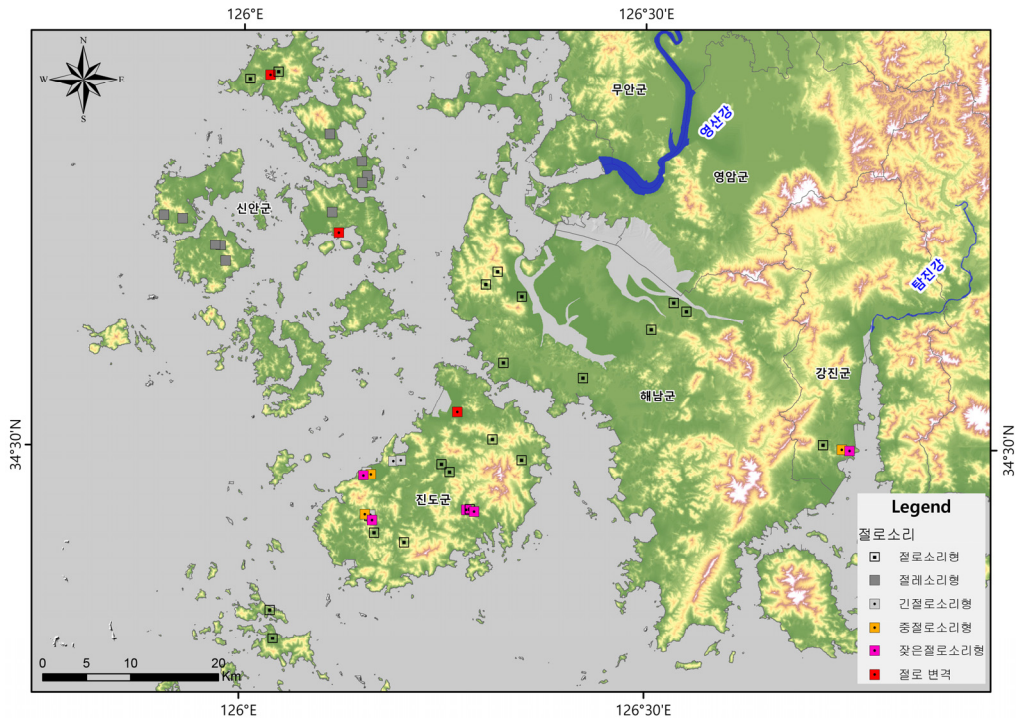


그림 4. 전남지방 절로소리의 분포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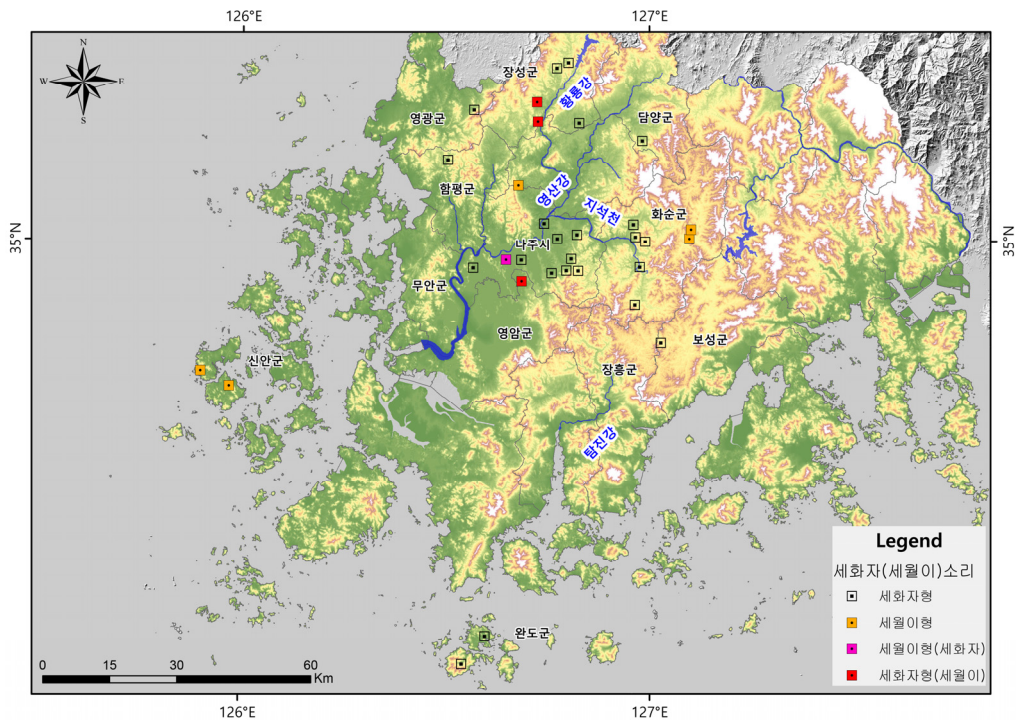


그림 5. 전남지방 세화자(세월이)소리의 분포영역

표 5. 전남지방에서 채록된 세화자(세월이)소리의 분포

논매기소리명칭	분류	녹음지역	다른 이름
세월이	세월이형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	짚은 논맴, 아룡저룡
세월이	세화자형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	
세월이	세화자형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세월이	세화자형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세월이	세화자형	나주시 다도면 신동리	
세화자	세화자형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	
세월이	세화자형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세월이	세화자형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세월이	세화자형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세월이	세화자형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세월이	세월이형(세화자)	나주시 왕곡면 월천리	
세화자	세화자형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세월이
세워자소리	세화자형	보성군 노동면 금호리	
차마 서러 못하겠네	세월이형	신안군 비금면 월포리	
차마 서러 못하겠네	세월이형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세화자	세화자형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세화자	세화자형(세월이)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세화자	세화자형(세월이)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논매기소리	세화자형	완도군 노화읍 생골리	
논매기소리	세화자형	완도군 보길면 부향리	
논매기소리	세화자형	완도군 보길면 부향리	
만드리	세화자형	장성군 남면 삼태리	세화자, 짚은 사하뒤여
군벌매기소리	세화자형(세월이)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세화자	세화자형(세월이)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세화자	세화자형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세화자	세화자형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호미
세화자	세화자형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세화자	세화자형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논매는 노래	세화자형	화순군 능주면 만인리	세월이나 보내세
세오자	세월이형	화순군 남면 사평리	짚은 논매기
세오자	세월이형	화순군 남면 장전리	짚은 논매기
세월이	세화자형	화순군 청풍면 차리	논매기소리
세월이	세화자형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논매기소리
세월이	세화자형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논매기소리
논매기소리	세화자형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세월이나 보세

5. 문화지역

‘아리시고나 류’의 기본형은 주로 영산강 유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아류나 변격, 관련소리는 영산강유역에서 벗어난 화순군, 곡성군, 장흥군, 해남군, 신안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아지소리’는 주로 섬진강 유역의 순천시와 보성군, 광양시에서 기본형인 ‘산아지로구나형’과 기본형에 가까운 ‘산이로구나형’이 대부분 나타나며, 기타변형형은 비교적 먼거리에 위치한 장흥군과 완도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절로소리’는 대부분 진도군

전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문화지역: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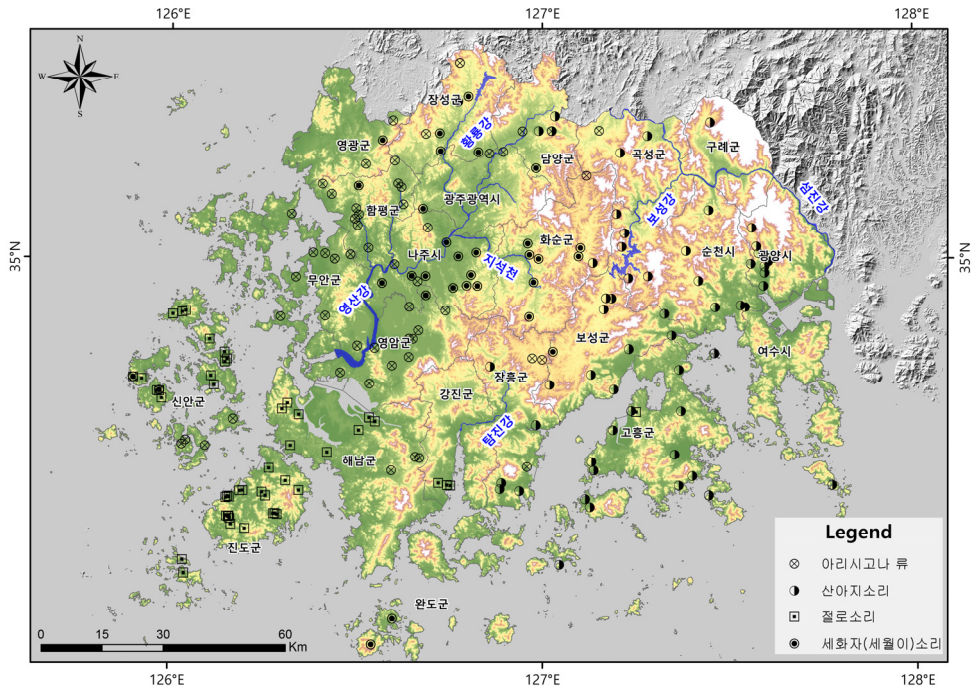


그림 6. 전남지방 아리시고나 류 및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의 분포영역

와 신안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장단의 길이가 뒤섞인 ‘절로소리형’과 ‘절레소리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격을 벗어난 ‘절로 변격’은 강진군과 신안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화자(세월이)소리’는 영산강 중류 좌안에서 주로 나타나며, 거의 기본형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6).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리시고나 류’ 및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의 문화지역을 살펴보면, ‘아리시고나 류’는 영산강 유역 전체가 문화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의 중심지는 영산강 중하류 지역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7). 이는 이소라(2003)와 이소라 등(2020a)의 연구에서 ‘아리시고나 류’의 문화 중심지를 나주시 일대라고 주장한 것보다 확장된 것으로 ‘아리시고나 류’의 문화 중심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소라(2003)는 ‘아리시고나형’을 ‘아리시고나 류’의 대표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리시고나형’의 분포 양상과 비교해 보면 ‘아리시고나형’ 기본형의 분포지가 ‘아리시고나형’ 기본형보다 밀집해 있고 변형률도 낮아 ‘아리시고나형’이 ‘아리시고나형’에서 변형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

서 ‘아리시고나 류’로 유형이 분류되어 표기되어 있는 이 노래의 대표형을 ‘아리시고나 류’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아지소리’의 분포 양상으로 볼 때 섬진강 유역 및 탐진강 유역 일대가 문화지역으로 판단된다. 문화 중심지는 이소라 등(2020b)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보성군과 순천시가 그 문화 중심지로 여겨진다. 이소라(2003)는 ‘산아지소리’가 문화 중심지에서 남해안으로의 전파가 섬진강을 따라 이루어졌을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산아지소리’의 유형 별 분포를 보면 주로 보성강 상류의 고개를 따라 전남 남해안 지방으로 전파되었고 이후 해안의 평야지대를 따라 광양시나 고흥군, 장흥군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7).

‘절로소리’의 문화지역은 진도군을 포함한 전남 서남부 도서 및 해안지역으로 판단된다. 문화 중심지는 이윤선(2006)과 이소라 등(2020b)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진도군 진도읍과 지산면의 경계부인 지금은 간척되어 이름만 남은 소포만 일대로 판단된다(그림 7).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남도들노래’에서 ‘긴절로소리’, ‘중절로소리’, ‘짧은절로소리’로 구분하여 부르다고 하였으나,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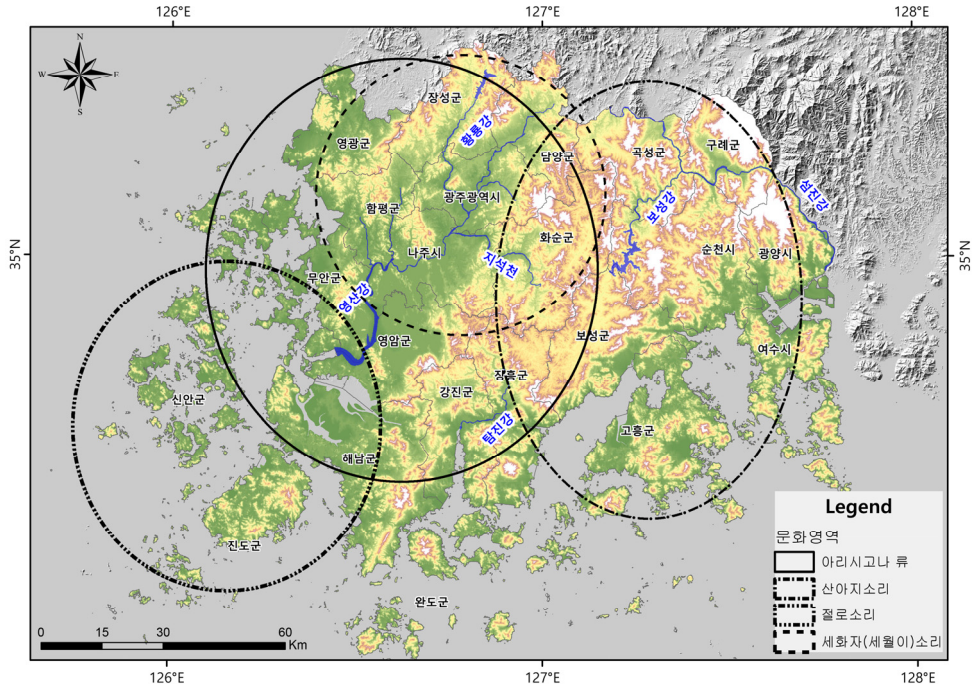


그림 7. 전남지방 아리시고나 류 및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의 문화지역

록된 ‘절로소리’의 유형분류에 의하면 구전되던 논매기 소리가 체계화되면서 ‘긴절로소리’, ‘중절로소리’, ‘짧은 절로소리’로 구분되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세화자(세월이)소리’의 문화지역은 이소라(2003)의 연구와 비슷하게 영산강 중상류 지역으로 판단된다. 문화 중심지는 영산강과 지석천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여겨지며, 크게 두 방향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갈래는 영산강의 물길을 따라 상류로 전파된 것이며, 한 갈래는 지석천을 따라 상류로 전파된 후 고갯길을 통해 보성 및 장흥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지석천을 따라 상류로 전파된 노래는 다시 뱃길을 따라 완도와 신안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7).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남지방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중 지역적 분포 특성이 뚜렷한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를 대상으로 그 분포와 특성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1970~1980년대

전남지방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의 총 곡 수는 695곡으로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가 총 219곡으로 약 31.5%를 차지한다.

‘아리시고나 류’는 ‘아리시고나형’, ‘아리시구나형’, ‘아리씨구나형’, ‘어리시고나형’, ‘어리시구나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기본형과 맺음 류, 변격형, 관련 소리, 아류 등으로 분류되었다. ‘산아지소리’는 받음구에 따라 ‘산아지로구나형’, ‘산아리로구나형’, ‘사랑이로구나형’, ‘산아니로구나형’, ‘기타로’ 분류되었으며, ‘절로소리’는 ‘긴절로소리’, ‘중절로소리’, ‘짧은절로소리’, ‘느리고 빠른 장단이 혼재된 절로소리형’, ‘절로 변격’으로, ‘세화자(세월이)소리’는 기본형인 ‘세화자형’, 변형형인 ‘세월이형’, ‘세화자와 세월이가 뒤섞인 소리’로 분류되었다. ‘아리시고나 류’와 ‘산아지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는 기본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에 ‘절로소리’의 경우 장단의 변화가 심한 ‘절로소리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는 지역적인 분포 패턴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아리시고나 류’는 주로 영산강 중하류 유역에 밀집되어 나타나고, ‘산아지소리’는 섬진강 중상류 및 보

성강 유역에, ‘절로소리’는 진도와 신안을 포함한 전남 서남부 도서 및 해안지역에, ‘세화자(세월이)소리’는 영산강 중상류 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노래의 중심지는 각각 영산강 중류 우안, 보성강 유역, 진도군 소포만 일대, 영산강 중류 좌안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남지방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중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를 대상으로 그 분포 특성과 문화지역에 대해 밝혀보았다. 분석결과 ‘아리시고나 류’나 ‘산아지소리’의 경우 기존연구(이소라, 2003; 이소라 등, 2020a; 2020b)의 문화지역의 범위 및 대표격의 형태, 전파경로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의 연구에 쓰인 논매기소리의 절대적인 수가 금번 연구에 비해 매우 적은 것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지역적인 발음을 청각에 의지하여 기록하면서 발생한 오기에 의해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민요와 관련된 타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이를 재해석하는 작업과 녹음된 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기기분석을 통한 유형 재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논매기소리는 선대로부터 구전되는 노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창자의 출신지 및 거주지에 대한 정보만을 중심으로 논매기소리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명확하게 어떠한 경로로 문화지역을 형성하였는지에 대한 해석의 난해함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록지 주민의 입촌 과정과 같은 역사적 사실 검토와 인근지역간의 교류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註

- 1) 지역에 따라 논매기소리가 구분되지 않는 곳도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 모를 옮겨 심는(모심기) 이앙법의 경우 고려말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5세기 이전까지 직파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시기상으로 논매기가 모심기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다(정태연, 2010).
- 3) 장원질소리는 농민들이 한해의 논매기를 모두 마치고 나서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일꾼을 농사장원으로 뽑아 소에 태우고 샷갯을 거꾸로 씌우고 풍물을 치고 춤추며 주인집으로 행진해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4) 본 연구에 이용된 논매기소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부터 분리되기 전인 1970~1980년대 집중 녹음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전남지방’으로 표기하였다.
- 5) 받음구(받는소리)는 메기고 받는 가창 방법의 노래(선후창) 중 여럿이 뒤에 매번 같은 말로 받는 부분의 소리를 의미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6) 유희요(遊戱謠)는 놀이를 질서 있게 진행시키며 놀이 자체를 흥겹게 하기 위해, 또는 승부에 이기기 위해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7) 웅치면은 1545년 장흥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4월 1일 보성군으로 다시 편입되었다(보성문화원).
- 8) 메김구(메기는소리)는 메기고 받는 가창 방법(선후창)의 노래에서 혼자 앞서서 매번 사설을 바꾸어 부르는 소리를 말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9) 상사 류는 후렴에 상사 또는 그와 유사한 음가(音價)가 들어있는 노래로, 모 찌기, 모심기, 논매기, 밭매기, 귀향하기, 나뭇짐 지기, 말뚝 박기, 보 다 지기, 흙가래질하기, 땅 다지기, 흙뭉치 올리기, 묘 다지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용도로 부른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10) 만물소리는 세벌 논매고 부르는 ‘만두레’의 다른 이름으로 즉, 마지막 논매기를 끝내고 부르는 논매기 소리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11) 에염은 ‘엿’ 또는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방언으로 농경사회에서는 논독을 의미하며, 에염소리는 논독으로 나오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디지털농산문화대전).

참고문헌

- 강동하, 1997, “한국 민요의 사적 전개 양상” 구비문화연구, 5, 97-122.
- 강동하, 2009, “한국의 민요연구 역사와 문제의식의 추이” 한국민요학, 27, 37-82.
- 과학기술처, 1971, 「1: 50,000 지질도폭 설명서, 진도·지산, 대전 국립지질조사소
- 김정수·장동호, 2020, “경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 특성 연구: 상사 류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2),

- 313-323.
- 박현수·장동호, 2016, “지형요소를 활용한 충북 논매기소리의 전파 특성 분석: 짙은방아 및 상사류를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23(2), 61-70.
- 서영숙, 2019, “한국민요 아카이브 및 라키비움의 구상” 한국민요학, 57, 41-72.
- 송방송, 2012, 「한겨레음악대사전, 파주: 보고사.
- 양광호, 2001, “경상북도 지역의 토속민요에 나타난 시김새 연구-논매기 소리를 중심으로-” 국악교육, 19, 60-146.
- 유재진·장동호, 2014, “충청남도 남동부에서 나타나는 논매기소리의 분포와 전파에 관한연구-지형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21(2), 11-23.
- 이소라, 1987, “농사와 농요의 관계” 한국민속학, 20, 157-162.
- 이소라, 2001, 「농요의 길을 따라」, 서울: 밀알.
- 이소라, 2002, “민속음악과 예술 - 노동요를 중심으로 -” 비교민속학, 23, 103-135.
- 이소라, 2003, “영산강유역의 논맴소리 <아리시고나>고” 한국민요학, 13, 91-114.
- 이소라, 2014, “올러가세 류의 논매기소리 고찰” 한국민요학, 40, 145-168.
- 이소라·장동호·변정민, 2017, 「전북지방 논매기소리 총서(하)」, 공주: 공주대학교; 대전: 민족음악연구소
- 이소라 등, 2020a, 「전남지방 논매기소리 총서(상)」, 공주: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대전: 민족음악연구소
- 이소라 등, 2020b, 「전남지방 논매기소리 총서(하)」, 공주: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대전: 민족음악연구소
- 이옥희, 2002, “<산아지타령>의 연행과 전승양상” 남도민속연구, 8, 149-168.
- 이윤섭, 2006, “소포만의 간척기(干拓期) 민속음악 변화연구 - 남도들노래, 진도만가, 진도북놀이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27, 29-52.
- 임택순, 1998, 「(제2판)문화지리학」, 서울: 법문사.
- 전라남도, 2015, 「한국지리지 전라남도」, 서울: 푸른길.
-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2016, 「나주 전통민속예술 및 예인 연구,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
- 정태연, 2010,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53-76.
- 조혜영, 2009, “진도와 인접지역 장원질 소리의 음악적 특성 연구” 한국전통음악학, 10, 249-289.
- 최난경, 2009, “논매는 소리의 기능별 분류와 분포에 대한 고찰 - 경상도 논매는 소리와 전라도 논매는 소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1, 298-336.
- 최자은, 2016, “영남지역 무형문화재 지정 논매기 상사소리의 수용에 관한 현장론적 연구” 한국민요학, 46, 237-266.
- 광주광역시청, <https://www.gwangju.go.kr>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 디지털논산문화대전, <http://nonsan.grandculture.net>
- 보성문화원, <http://boseong.kccf.or.kr>
- 전라남도청, <https://www.jeonnam.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교신 : 장동호,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56,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gisrs@kongju.ac.kr)
- Correspondence : Dongho Jang, 32588,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gisrs@kongju.ac.kr)

투고접수일: 2021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21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